

<2018년 5월 13일 주일말씀>

온 세상의 참된 스승이 누구나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 주는 자다)

본 문 디모데후서 4장 2-4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1.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선생’ 이다.
2. <스승>에는 ‘자기 민족의 스승’ 이 있고, ‘세계의 스승’ 이 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스승>이라고 하면, 흔히 ‘예수님, 석가 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라고 생각한다.
3. <예수님>은 ‘메시아’ 로서 ‘육신과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죄와 의’ 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과 ‘영원한 천국’ 을 가르쳐 주셨다.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른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로 믿고서, 육도 영도 구원을 받고 살게 됐다.

4.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이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준 것이고,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 것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5. <석가모니>는 ‘불교의 지도자’로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고 가르쳐 주었다.
6. 불교의 전경(全經)을 보면, <석가모니>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지 못했다. 고로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주지 못했고, ‘근본의 선과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못했다.
7. <근본의 선(善)>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선(善)’이다.
8. <불교>에서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리도 절을 한다. 이는 <구원과 연결된 행위>가 아닌, <하나의 도를 닦는 행위>에 불과하다.
9.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이나 영혼이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함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말한다.
10. <소크라테스>는 ‘인생’을 ‘학문’으로 논하며 가르쳐 주었

다. 역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못했다. 고로 그 역시 ‘온 인류의 스승’이라고 볼 수 없다.

11. <공자>는 ‘부모 공경, 어진 사람, 예절, 덕’에 대해 가르쳤다.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고, ‘근본의 선과 의, 성공’에 대해 가르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에 대해 가르치지 못했다.

12. <세계적인 큰 스승>이라면,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육과 영의 세계’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세계적인 참된 스승’이다.

13. <세계적인 참된 스승>이라면, ‘성경’을 풀어서 ‘그 말씀을 이행’하고,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고, 그 목적을 실행하여 ‘창조 목적과 뜻’을 이뤄야 된다. 그리함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고 약속하신 소원>을 이뤄 드리고, 그로 인해 <인생들의 소망>을 이뤄 줘야 된다.

14. <진정한 스승>이라면,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해 줘야 된다. 곧 삼위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 줘야 된다.

15. 사람이 성장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실, 도리, 자비, 선한 행실, 그리고 무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러나 <인생이 태어난 목적>, <하나님의 뜻>,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모른다.
16. <세계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가르침과 도’를 받아들이고 살았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17.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알았고, ‘육도 영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어 살았다. 그리함으로 <육신>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그 <영혼>도 ‘영원히 천국’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18. 예수님 때는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는 가르쳤고 <그 뜻>도 이루었으나,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근본의 창조 목적>은 가르치지 못하여, <근본 창조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19. <이 시대 스승>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워서 ‘인생들이 지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주었고, ‘삼위가 원하시는 최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 구원받게 해 줬다.

20. <이 시대 스승>은 ‘시대의 죄’를 대신하고 조건을 세워 태어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어떻게 이루었는지는 <지난 40년 동안 가르친 말씀>과 <행한 일>을 보면 안다.
21. <이 시대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자들>은 ‘영원하고 참된 선의 사람’이 되었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고, ‘휴거’로 더 이상은 없는 인간 최고의 소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었다. 이로써 그 영혼들이 ‘최고의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됐다.
22.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스승>, <자기 중심으로 가르치는 스승들>이 너무 많다. 혹은 잘 가르친다 해도 <지극히 인간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며, <배워도 특별한 것이 없는 지식에 속한 가르침>이며, <인생들이 크면서 다 알게 될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23. <가르치는 선생과 스승>은 맞을지라도, 그 가르침은 한낱 ‘지식’과 ‘상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멋있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살 수가 없다.
24. <이 시대 스승>은 ‘하나님과 인생의 근본 목적’에 대해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생 최고의 소망’을 이뤄 주었다.
25. <이 시대 스승>은 늘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살았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르쳤다 한다. 지금도 <삼위>가 늘 가르치며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항상 그 옆 1m 안에 계시며 가르쳐 주신다.

26. <이 시대 스승>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고, ‘성자’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한다.

27. (성령) 행할 때, 깨닫게 해 준다.

28. (성령) 너희가 행할 때, 삼위는 어떻게 행할지 깨닫게 해 준다. 특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할 때 깨닫게 해 준다.

29. 아직도 서운함을 타면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며 섭리사를 나가는 자들이 있다. 참으로 무식한 자들이며 자기 소망만 이루려는 자들이다. - 이는 ‘그동안의 자기 신앙을 측정하는 근거’다.

30.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된다. <주의 뜻>대로 살며, <그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31.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개인, 가정, 민족의 평화’가 오고 잘되고 형통한다.

32. 지금도 <하나님>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니, ‘민족과 세계의 평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그런 자가 <시대

의 참된 스승>이며, <하나님이 보낸 자>다.